



세대간 중심이동의 문턱에서

3000여 학회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부족한 제가 19대 학회장의 중책을 맡아, 우리 학회를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학회 대표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26년의 짧은 기간에 질적 및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 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 계미년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학회도 긴축운영을 하지 않으면 살림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회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차제에 학회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회의 노력에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년에 가진 연중 행사 및 사업들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계가 학회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봄, 가을 학술 발표회가 산학 협력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폴리머지·영문지 편집위원회를 대폭 강화하여, 본 학회의 얼굴인 국문, 영문 학회지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에 학회 운영의 비중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도 이사진 몇 사람 만의 힘보다는 전 회원의 학회 사랑과 관심이 하나로 모아질 때에 쉽게 현실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훌륭하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김영하(KIST) 수석부회장님, 김동국(한양대), 조병욱(조선대), 정종구(동부한농화학) 부회장님들 이외에 송기국(경희대) 전무이사님, 한양규(한양대)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이사님들께 도움과 희생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운영이사들이 열심히 일하여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대회에서의 기적에 가까운 성적, 아시아 대회의 성공적 개최,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세대 도약 등 지난 2002년 임오년은 우리 민족의 저력과 세대간의 중심이동 등을 통한 자긍심과 변화의 획득을 이룩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3년 계미년을 시작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기간동안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큰 발전을 기원하고 가내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2003년 1월 1일
신임회장 이 동 호